11/19/17

설교 제목: 절대적인 믿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누가복음 17:11-19

(눅 17: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눅 17: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눅 17: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눅 17: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눅 17: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눅 17: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눅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눅 17: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절관주] 마 9:22

(눅 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누던 로마서 말씀을 잠시 접어 두고 감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해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해 11 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정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바로 전 주일에 추수 감사절 에배를 드립니다.

이날이 되면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일년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은 전통은 1620 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영국 필그림 청교도인들이 낯설은 이곳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에 박해를 받아 홀랜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 필그림들은 거기서 얼마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 년 엘리자베스 여왕 1 세가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 세 여왕이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자 이들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한 후 100 여명이 1620 년 9 월 29 일 메이플라워호를 탔습니다.

모진 항해 끝에 그해 11 월 9 일 메사추세츠 주 케이프카드 만에 도착했습니다.

청도교 필그림들은 첫 해를 나면서 굶주림과 추위 풍토병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습격 등으로 인해 거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극적으로 인디언들과 상호 협력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들은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등을 경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때때로 그들이 잡아다 준 짐승들을 먹기도 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교도 필그림들은 이듬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초라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추수 감사절 예배는 해마다 계속 되었으며 이것이 커네디컷트와 메사추세츠를 비롯하여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789 년 조지 워싱톤 대통령이 11 월 26 일을 감사절로 정해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1941 년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11 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추수 감사절의 진정한 유래는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오순절, 칠칠절) 수장절(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23: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유월절(Passover)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아빕월(유대력으로 1 월, 태양력으로 3, 4 월)에 지키며 절기 동안에는 어린양을 잡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7 일 동안 먹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절기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칠칠절(Pentecost)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첫 안식일이 지난 후 50 일째 되는 날 봄에 곡식을 수확하면서 첫 이삭을 한 단 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3 월(태양력으로 5, 6 월)에 지키는데 봄에 수확하는 작물인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므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50 일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Tabernacle day)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7 월 15 일(태양력으로 9, 10 월)부터 7 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지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 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과 가을에 곡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추수한 작물을 창고에 들이지 바로 직전 추수한 작물 중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루어질 영적인 결산의 날을 예표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보내며 마냥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깊은 뜻을 새기며 다시 한번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병은 문둥병 요즈음 말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피부가 곪고 썩어 들어가 눈썹도 빠지고 코도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빠져 쳐참하게 죽는 병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 이 병을 다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천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므로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쓸쓸히 죽을 때만 기다릴 수 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 가셨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눅 17: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눅 17: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눅 17: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눅 17: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자신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에수님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나병 환자가 완치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의 병을 이미 치료해 주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에수님께서는 나병이라는 치료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눅 17: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눅 17: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배척했으며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눅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눅 17: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치유해 주신 에수님께서 지금 당신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나머지 아홉에 대해 거론하십니다.

다른 아홉 명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로 답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나머지 아홉은 병 고침을 받은 은헤가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은데 대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잠재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했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이방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감사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적인 구원 즉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간단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명 중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증서를 받아 들고 각자 집으로 돌아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자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아홉 명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깨끗하게 낫다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에 다시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꼭 예수님께로 돌아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을 꾸짖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말씀 드린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고 당신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는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을 확인한 후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죄인인지라 이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종국에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